



# INTERVIEW 01

공익활동 이야기

##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로부터 양심의 자유를 향해 지평과 함께 걷은 길을 듣다

아나파의원 원장 /  
진실의 힘 이사 **강용주** 선생님  
진행 법무법인(유) 지평 **김승현** 변호사

“보안관찰법은 길들이려 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저는 길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권력보다 우월한 것은 자유로운 개인들의 권리가기 때문입니다. 근대 자유로운 시민이 탄생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였습니다. 오늘날에는 19세기의 ‘길들이지 않을 자유’를 넘어, 21세기의 ‘원하는 것을 실현할 자유’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가로막는 과거의 유산과 저는 계속 싸울 것입니다.”

### 「보안관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보안관찰법」은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사회를 비판하고 변혁하려는 움직임을 막기 위해 제정한 「사상범보호관찰법」에 뿌리를 둔 법입니다. 이 법은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들의 사상을 통제하고자 각종 신고의무를 부과합니다.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도 법원의 판단을 통해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는데, 사상범에 대한 보안관찰처분은 공안당국의 판단에 따라 종신형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16년간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채 신고를 하지 않는 불복종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습니다. '재단법인 진실의 힘' 이사로서 고문 생존자 치유 활동을 지원한 것이 간첩 회합이라는 등의 허위공문서를 조작해 터무니 없는 사유로 보안관찰을 해왔다는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보안관찰처분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이에 불복종한 것은 무죄라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 무죄 선고를 받고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논리적이고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결정이지만, 것처럼 당연한 결정을 받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알고 있기에 합리적인 판단을 받아 기쁩니다. 「보안관찰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국가권력의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분고분하지 않은 사람의 사상을 통제하고 길들이려 하는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잔재에 대해 반성하고 바뀌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인간의 얼굴을 한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꽃 피우는 것이 근대 시민사회, 민주사회입니다.

### 지금도 「보안관찰법」과 맞서고 계신데요, 앞으로의 계획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올해 초 법원에서 보안관찰 사유가 없다는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저는 여전히 신고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조치를 미루면서 여전히 감시 아래에 두겠다는 것인데, 이러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밝히고자 지평과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주 : 법무부는 강용주 선생님과 지평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인터뷰 후인 2018년 12월 보안관찰처분 면제 결정을 하였습니다.

### 지평과 함께한 사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평과 인연을 맺은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누구도 간첩조작 사건, 재심 사건을 맡으려 하지 않을 때 처음 나선 것이 지평이었습니다. 몸 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일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묵묵하고 꾸준히 해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늘 지평이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평의 모습을 직접 지켜본 사람으로서 큰 신뢰와 믿음을 보냅니다.

# INTERVIEW

## 02

공익활동 이야기

###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팀에게 장애인권 제도개선 방향을 듣다

#### 장애인권리협약 연구용역팀

(법무법인(유) 지평 윤재훈, 김이안, 신혜주, 이채린 변호사, 정진 외국변호사, 사단법인 두루 이주언, 이태영, 최초록, 마한얼 변호사)

진행 사단법인 두루 **마한얼** 변호사

지평과 두루는 정부의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연구용역을 맡았습니다. 장애 정책 전반을 살펴보는 큰 프로젝트였던 만큼, 지평과 두루에서 많은 변호사가 참여하여 매주 세미나를 열어 지속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연구용역에 참여했던 연구원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습니다.

####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실태 연구용역은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나요?

**이주언** 육아휴직 중에 임성택 변호사님과 이태영 변호사님으로부터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실태 연구용역을 신청하려고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임성택 변호사님과 2014년에 제네바 유엔 본부에 가서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정부 심의를 참관한 경험이 있어서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는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육아휴직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안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태영** 이 연구용역은 한국의 장애인권 실태 전반을 점검하는 기회였기에 주저 없이 참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연구를 통해 장애인권리협약의 전반적인 내용, 심의 절차와 과정 등을 이해하고, 앞으로 장애인권 영역에서 활동할 때 큰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에 참여하였습니다.

#### 연구용역팀 활동을 하시면서 언제 보람을 많이 느끼셨나요?

**윤재훈** 장애당사자와 장애인체들이 함께한 그룹 인터뷰 시간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기사나 통계를 넘어 구체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깨달았고, 연구용역 결과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당사자들을 만나보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보람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초록** 지평 변호사님들이 연구에 많이 참여하여 매주 세미나를 했던 것이 좋았습니다. 다들 많이 바쁘셨을 텐데, 매주 거의 빠지지 않고 세미나에 참석하고, 돌아가며 발제를 했어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니 제가 간과했던 부분들을 깨닫기도 했습니다.



#### 정말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는데 특히 기억에 남는 주제가 있나요?

**이채린** 제가 담당했던 부분 중 장애아동 이슈가 가장 기억에 납니다. 최종 견해도, 정부 답변도 없고, 문제 제기마저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장애인권 중에서도 가장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영역이라고 느껴져서 가슴이 아프기도 했고, 충격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주언** 저는 이번 용역에서 교육을 맡기도 했고, 평소에도 특수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얼마 전 방한한 농민 법률가 마이클 슈와츠 교수님이 장애인 고용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교육을 언급하시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가 교육과 연결되기도 하지요. 장애 영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 연구용역팀을 마치면서 소감이나 하고 싶으신 말을 들려주세요.

**윤재훈**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보고서를 타이핑하면서도 서늘한 글자들이 많았는데, 이 보고서가 현실에서 살아가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제도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혜주** '역지사지'의 태도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이번 연구용역 세미나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나'를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 볼 때가 정말 많다는 걸 느꼈어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경험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걸 늘 염두에 두고 다양한 방면으로 세상과 소통하려고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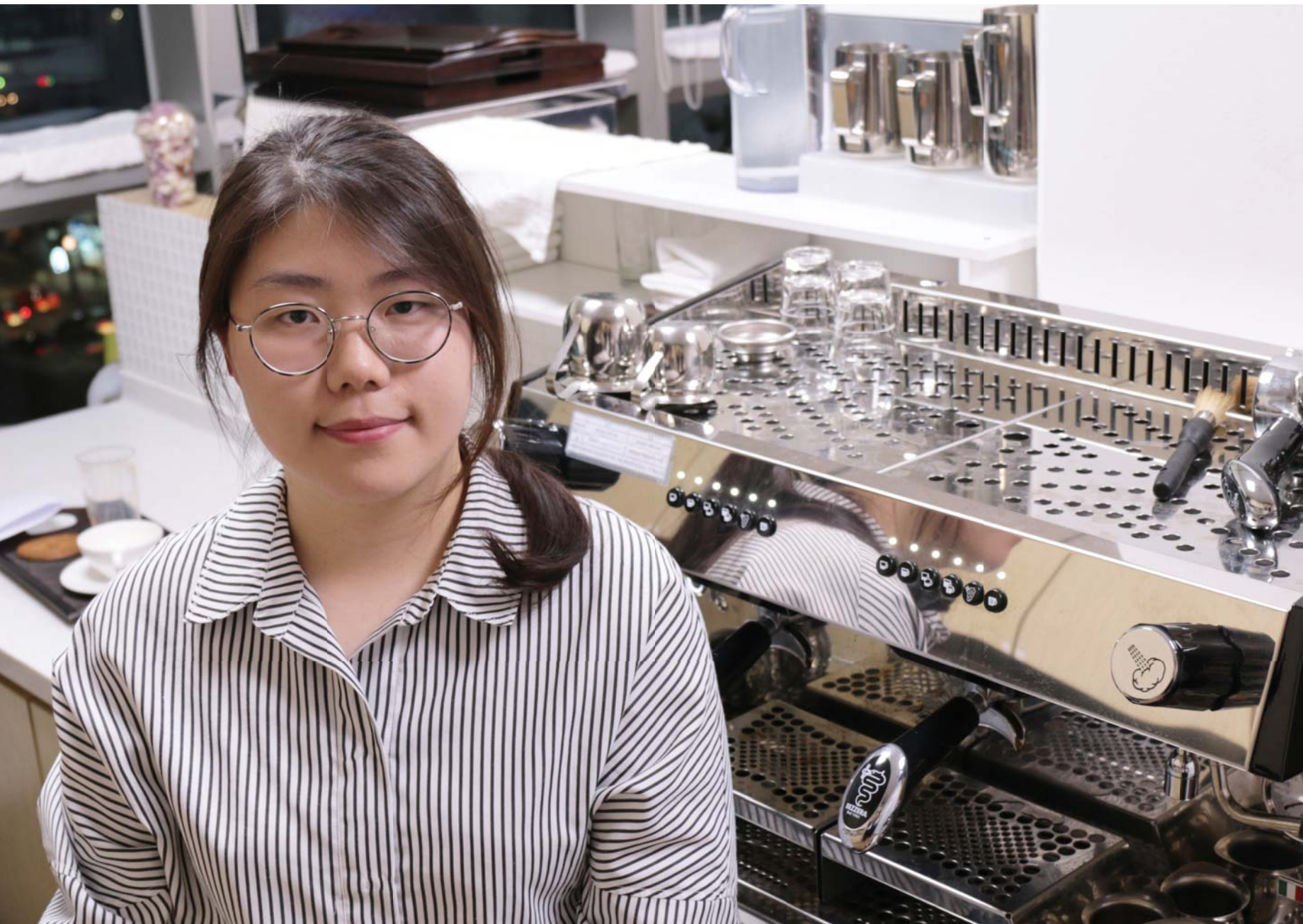
**김이안** 돌이켜보면, 어려운 와중에도 늘 화기애애하게 회의를 하고 모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연구용역팀 변호사님들과 만나고 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안을 받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뒤편이 때 삼청동에서 수제비를 먹고 한옥 다락방에서 이야기를 나눈 일도 오래 마음에 담아둘 거예요.

# INTERVIEW 03

공익활동 이야기

## 바리스타 오경선 사원을 만나다

법무법인(유) 지평  
리셉션 / 바리스타 오경선 사원  
진행 사단법인 두루 엄선희 변호사



바리스타인 오경선 사원은 지평 회의실에 방문하신 분들께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지평 리셉션 오경선 사원이 직접 만든 커피를 마시며 지평에서의 생활과 공익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 바리스타가 된 계기와 바리스타를 하면서 힘든 점, 즐거운 점이 궁금합니다.

중학교 때 책을 보고 커피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되었어요. 나중에 여행을 하면서 각 나라 원두로 만든 커피를 마셔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바리스타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힘든 점은 커피머신 열기 때문에 너무 덥다는 것인데 그래서 항상 얇은 옷을 입고 다니는 편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많은 커피를 만들어야 할 때가 있는데 한꺼번에 12잔을 만든 적도 있습니다. 고객께서 라테아트가 예쁘다고 사진까지 찍었다고 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 지평에는 어떻게 입사하시게 되었나요?

바리스타 자격을 취득하고 4-5군데 커피숍에 지원서를 내고 면접도 봤는데 잘 안되었어요. 손님과 대화가 잘 안될 것 같다고 솔직하게 말해준 카페도 있었어요. 청각장애인의 일자리를 연계해주는 '청음회관'이라는 곳에서 지평의 바리스타 채용 소식을 알려주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평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채용 공고를 냈고 제가 합격해서 2018년 5월 28일부터 바리스타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지평에 입사해서 어떤 공익활동에 참여하셨나요?

지난 주 토요일에 연탄봉사활동에 참여했고, 급식봉사활동도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점자도서 입력 봉사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평에 입사하기 전에 봉사활동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는데 회사에 봉사활동 프로그램이 많아 참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탄봉사활동이 가장 인상적이었는데 힘들었지만 사람들이 줄을 이어서 연탄을 하나씩 옮기면서 협동심이 느껴졌습니다.

### 청각장애인으로서는 회사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그 밖에 하고 싶은 말을 들려주세요.

저는 전화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직원 분들이 정말 잘해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딱히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청각장애인으로서는 업무를 어떻게 해야 할지 서로 잘 맞추면서 해결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 드리고, 제 커피를 맛있게 드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맛이 없다면 편히 말씀해 주세요.

## ‘위즈돔’ 창업자로서 활동하시다가, 현재는 소풍에서 대표를 맡고 계시는데, 소풍에는 어떻게 합류하게 되셨나요?

대학 시절 사회적기업가를 꿈꾸는 친구들과 함께 '넥스터스(Nexters)'라는 단체를 설립한 적이 있어요. 당시 소풍 설립자인 이재웅 대표님(전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이 소풍이 투자할만한 소셜벤처를 찾기 위해 넥스터스를 찾아와주셨고, 그렇게 소풍과 첫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대기업에 입사하기도 했었고, 창업을 하기도 했었는데, “더 큰 임팩트를 만들어보자”는 이재웅 대표님의 설득에 이끌려 소풍으로 오게 되었어요.

## 소풍은 어떤 소셜벤처에 투자하나요? 소셜벤처들이 말하는 ‘임팩트’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우리는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명확한 지향과 사회적 가치 측정에 대한 의지가 있는 기업에 투자합니다. 그 중에서도 '자기 자신의 문제'에서 시작한 팀을 우대하는 편이에요. 소셜벤처가 만들어내는 '임팩트'를 하나의 척도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잣대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의 사회적 가치를 스스로 설명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기 '핏'에 맞게 그 개념을 변주할 여지가 있어야 해요.

## 소풍을 이끄시면서 가장 힘든 점, 그리고 가장 큰 보람은 무엇인가요?

저희는 저희가 투자한 회사를 '팀'이라고 부르는데, '팀'이 망가져 가는 것을 볼 때가 가장 힘들어요. 불행하게도 회사의 성장 속도와 리더의 성장 속도가 달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해당 기업의 대표가 우리를 찾아와 하소연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는데, 마치 내 일인 것 마냥 괴로웠습니다. 가장 큰 보람도 '팀'과 관련된 것이에요. 팀이 성장하는 것, 그리고 그 리더가 성장하는 것이 눈에 보일 때 정말 기뻐요. 저희는 저희의 조언이 팀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수시로 목격합니다.

## 지평·두루의 소셜벤처 법률지원 활동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지평과 두루의 프로보노는 실제로 소셜벤처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팀들 대부분이 법률 수요가 있지만, 대체로 초창기 기업들인 까닭에 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모두가 '기업가'가 될 수는 없지만, 누구나 '기업가 정신'은 가질 수 있어요. 누구나 자신이 하는 일을 기반으로 임팩트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평과 두루에서 소셜벤처를 위해 하시는 일이 '기업가'가 아닌 자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는 하나의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SOPOONG(이하 '소풍')은 2008년 설립된 사회적 투자사로서, 쓰카, 텀블벅, 자란다 등 42개 소셜벤처에 투자하여 총 기업가치 6,422억 원을 만들어낸 소셜벤처 액셀러레이터입니다. 지평과 두루는 지난 3월 소풍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소풍이 투자하고 지원하는 소셜벤처 기업들이 안정적인 법률적 토대 위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INTERVIEW 04

## 공익활동 이야기

## 소셜벤처를 위한 소셜벤처, 'SOPOONG'을 이끄는 한상엽 대표에게 듣다

SOPOONG **한상엽** 대표  
진행 사단법인 두루 **김용진** 변호사



# INTERVIEW 05

공익활동 이야기



## 설립 5주년을 앞둔 ‘두루’, 8인의 공익변호사가 된다

### 사단법인 두루

강정은, 김용진, 이주언, 최초록,  
이태영, 이상현, 엄선희, 마한얼 변호사

진행 법무법인(유) 지평 김승현 변호사,  
사단법인 두루 김용진 변호사

두루는 이 세상 사람 모두가 ‘두루’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소외된 사람들의 인권을 대변하며, 우리 사회를 보다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공동체로 만드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업 공익변호사 단체입니다. 2014년 9월 지평의 후원으로 설립되었고, 2020년 9월에는 5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두루에서 일하는 변호사는 이제 어느덧 여덟 명이 되었습니다.

### 소수자·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다.

두루의 변호사들은 아동·청소년, 장애인, 이주민, 난민 등 소수자, 사회적 약자를 법률적으로 대변하는 일을 합니다. 불합리한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거나, 박해를 당하고 있는 이들이 헌법 또는 법률에 따른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돕고자 하는 사회적기업이나 소셜벤처를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일수록, 그리고 소수자일수록 법률적인 문제에 부딪힐 일이 많고, 법률에 기대야 할 순간들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공익변호사의 역할이 어느 사회에서나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밀 법률조차 없는 상황이라면, 또는 반대로 기존의 규범과 정면으로 싸워야 하는 순간이라면 공익변호사의 역할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두루 김용진 변호사의 이 같은 인식처럼 두루 변호사들은 때로는 법률에 기대어, 때로는 법률에 반하여 목소리를 높입니다. 국제인권 업무를 맡고 있는 두루 최초록 변호사는 개별적인 소송 사건이 제도적인 문제와 연결된 경우도 많다고 강조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구제하는 일은 결국 제도적인 문제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두루 변호사들은

개별적인 공익소송·공익자문과 입법지원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주민이나 난민 사건의 경우는 특히 한 건 한 건이 제도적인 문제를 내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제도 개선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기 좋은 사실관계를 찾아내는 것도 저희의 몫이죠.”

두루 변호사들은 아동·청소년 정책의 기본방향과 골격을 제시하게 될 ‘아동청소년인권기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행 ‘장애인거주시설’ 중심의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지역사회’ 기반의 서비스로 개편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위헌적인 구금을 지속하는 외국인 보호소에 대하여도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개선 업무는 단지 한 사람의 구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제의 근간을 교정하는 일하기에 보람도 더 큼니다. 두루에 최근 입사한 마한얼 변호사도 출생등록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출생등록은 모든 아동의 권리입니다. 출생한 아동들을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여 등록해야 하는 현행 출생신고 제도와 관련하여 생겨나는 공백들, 그리고 이런 공백들을 메우기 위한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저는 보람이 있더라고요.”

결국 두루 변호사들은 공익소송 및 공익자문을 비롯하여 제도개선 업무까지 다양한 업무를 소화해야 하는데, 두루 엄선희 변호사는 이 같은 업무특성 탓에 힘든 점이 있기는 하지만 보람이 더 크다고 합니다. “공익변호사로서 공익소송, 상담 및 자문, 연대활동, 교육활동, 입법지원활동 등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른바 ‘멀티태스킹’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도 힘든 것보다는 즐거움과 보람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 한계를 실감하는 순간

물론 두루 변호사들에게 보람 있는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루 이주연 변호사는 장애인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병원의 의료과실책임을 묻는 소송을 수행하였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해당 소송은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 소정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취지의 화해 권고로 마무리 되어 법률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결과를 얻은 셈이지만, 의뢰인의 삶이 본질적으로 나아진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당시 의뢰인은 중증장애인이었고, 세 자녀를 혼자 키우는 엄마였으며, 암투병 중이기도 하셨어요. 복지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분이셨던 까닭에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단순히 하나의 소송사건을 수행하는 것 외에 제도적으로 이 분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았는데,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이처럼 공익변호사로서의 한계를 실감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관계가 일반적인 변호사와 같이 위임계약에 따른 대가관계가 아니기에, 스스로의 역할을 규정짓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두루 변호사들은 이렇듯 당장은 감당하지 못할 큰 문제를 마주하게 될 때, 더 좋은 세상을 더 강렬한 마음으로 꿈꾸게 됩니다. 물론 그 세상을 더 빨리 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동료 변호사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 강정은 변호사

아동, 청소년, 함께 하는 이들이 좋아 시작했고, 여전히 사람들이 좋아 활동합니다. 공익 법률활동이 사회 전반에 두루 뿌리 내리는 날을 꿈꿉니다.



### 김용진 변호사

소셜벤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을 위한 법률자문과 제도연구에 힘쓰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생태계의 활성화가 사회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믿습니다.



### 이태영 변호사

사회적경제 조직이 안정적인 토대 위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차별 받지 않는 세상을 꿈꿉니다.



### 이상현 변호사

난민과 이주민의 인권과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행정구금, 그 중에서도 특히 외국인보호소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 두루가 그리는 미래

“요즘 저희는 두루가 왜 설립되었는지, 저희가 두루에 왜 들어왔는지에 대하여 생각을 많이 합니다. 두루의 정체성이나 미래를 그리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두루 이주연 변호사의 말처럼, 두루의 변호사들은 기회가 될 때마다 두루의 미래에 대하여 뜨거운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두루 변호사들은 길고 또 깊은 토론을 거치며 그간 흐릿했던 것들이 하나 둘 선명해짐을 느낍니다. 물론 만 다섯 살도 되지 않은 어린 단체인 탓에 정체성에 관하여도, 미래에 관하여도, 아직 그려야 할 것이 많지만, 사회적 약자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고 싶고, 앞으로 더 많은 동료가 필요할 것이라는 점에서는 모든 구성원이 한 마음입니다. 여기서의 ‘동료’는 단지 두루 소속 변호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루 강정은 변호사도 공익법률업무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변호사’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일감이 정말 많은데 업무량의 한계로 더 말을 수가 없다는 점, 그게 가장 아쉬운 것 같아요. 두루에서 변호사를 더 많이 채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공익법률활동의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미 활동 중인 공익변호사들 한 명 한 명이 더 잘해서 공익변호사의 필요성에 대한 대중의 공감대를 얻어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공익변호사 한 명이 많게는 수십, 수백 명의 사회적 약자를 지원할 수 있으므로, 공익변호사를 후원하는 일이 보다 효과적인 기부일 수 있습니다. 두루 변호사들의 활동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생각을 했으면 한다는 것이 두루 변호사들의 공통된 바람입니다. 물론, 강 변호사의 얘기처럼, 두루 변호사들은 “일단 우리가 잘해야 한다”며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 보다 민주적인 사회를 위하여

두루는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구제하는 일 외에 우리 사회를 보다 민주적인 사회로 만들기 위한 일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두루 이상현 변호사는 이러한 일도 결국 소수자를 대변하는 일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일은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구제하는 업무와는 조금 다른 측면의 일이지만,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는 사회일수록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인권도 제대로 보장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결국 그 본질은 같은 일일 것입니다.”

두루는 지평과 함께 선거제도에 관한 헌법소송을 수 차례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에는 국회의원 입후보자의 기탁금을 지나치게 다액으로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을 하게 되었고,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까지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신체장애 때문에 선거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하였고, 민주사회의 근간인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형해화한 정보기관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기도 했습니다. 협동조합 법률자문 및 제도개선 업무를 맡고 있는 두루 김용진 변호사는 “1인 1표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협동조합’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고,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일도 결국 같은 맥락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 지평과의 협업이 만들어내는 임팩트

두루는 지평과 머리를 맞대고 손을 모으는 일이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익소송을 공동으로 수행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공익변호사가 연차가 낮아 법률전문성이 부족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평과의 협업은 매우 큰 장점이 됩니다.

두루 이태영 변호사는 지평의 존재가 두루에게 더없이 든든한 이유는 공익활동에 대한 지평의 진지한 관심과 전문성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지평은 전반적으로 공익활동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많으시고, 영역별로 점차 깊이까지 더해가고 있어서 무척 든든하고 좋습니다. 특히 새로운 공익사업에도 늘 열린 마음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때마다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익사건의 중요한 길목에서 각 분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들을 지평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두루 변호사들의 지평에 대한 이러한 믿음과 기대는 두루 변호사들이 활동의 폭을 과감히 넓힐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 이주연 변호사

장애와 차별이 무엇인지, 좋은 변호사는 어떤 사람인지, 다 함께 즐겁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답을 찾고 있습니다.



### 최초록 변호사

두루의 국제인권 영역, 홍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주민과 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일에 주력하고 있으며, 국제연대 업무도 점차 늘려가고자 합니다.



### 엄선희 변호사

여러 단체와 연대하여 아동, 청소년, 교육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장애아동, 유아의 보육·교육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 마한일 변호사

국제인권과 아동·청소년·교육 영역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동이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 받고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